



우산고로쇠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단풍나무과
- ▶ 학명 : *Acer okamotoanum*
- ▶ 일명 : たけしまいたや

2004년 이른 봄, 홍릉수목원의 제 3수목원, 산림과학원 입구에 연한 노랑색 예쁜 꽃을 피우던 커다란 우산고로쇠 한그루가 어느 날 갑자기 팔과 다리를 늘어뜨리더니 그만 맥을 놓고 말았다. 그 몇 해 전부터 우산고로쇠에는 많은 종자가 열렸고 주변에는 많은 어린 나무들이 올라오더니 결국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는 주변에서 가장 튼튼하고 어미와 외부형태가 유사한 개체를 선택하여 식재하였다. 나이테를 보니 수명은 대략 80년쯤으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의 개원 년도와 비슷하였다. 인접한 곳에 고로쇠나무가 있고 단풍나무속의 여러 수종들이 있어 비교 관찰하시는 분들은 매우 애석해 하신다.

본인에게 북한에서 발간된 식물도감 두 권이 있어 우산고로쇠를 어떻게 표기했나 확인 했더니 북한지역에 분포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종으로 인정하지 않아서인지 두 종류의 도감 모두 아예 등재조차 해놓지 않았다.

1.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 특산종이며 울릉도의 특산으로 표고 500m되는 남향의 산기슭에



▲ 우산고로쇠



▲ 우산고로쇠



▲ 우산고로쇠



▲ 우산고로쇠

서 자생하는 낙엽활엽 큰 키나무로 수고 15m에 이른다. 내한성이 강하여 서울지방에서 무난히 월동하고 음지와 양지에서 모두 잘 자라며 토심이 깊고 비옥 적운한 사질양토에서 양호한 생장을 보인다. 맹아력은 강하나 건조에 견디는 힘은 약하고 집단성이 높아 숲 내에서도 간혹 우산고로쇠 단지를 만날 수

도 있으며 바닷가에서도 잘 자란다.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단간으로 곧게 자라며 수피는 회갈색이고 고로쇠와 비슷하며 잎은 서로 마주나고 잎자루가 길며 6~9개로 갈라지는데 고로쇠는 5~7개로 갈라진다. 잎의 뒷면 엽맥이 만나는 곳에는 흰 털이 있다. 갈라진 잎은 난형으로 꼬리 모양의 점첨두이고 심장저 또는 평저에 가까운 것도 있다. 원추상 취산화서는 새가지 끝에 달리고 꽃은 잡성, 양성, 또는 자웅일가화로 5월에 노랑색으로 잎과 같이 피며 수꽃은 넓이 8~9mm이며 열편은 계란상으로 황녹색이다. 꽃잎은 타원형 또는 도란형으로 길이 3mm이고 암술이 퇴화된다. 암꽃은 지름이 1cm이며 난형으로 끝이 연한 황색으로 수술은 짧거나 퇴화되었고 암술대는 길이 2mm이다. 열매는 9월에 익으며 날개는 길이 2~3cm, 넓이 1.4~1.8 cm이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5월에 황금색으로 피는 꽃과 잎은 황홀한 아름다움을 주며 여름철 무성한 잎은 시원스러워 공원이나 학교 숲에 식재하기에 좋다. 고로쇠나무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잎의 열편이나 크기도 다르다.

4. 번식법

번식을 위해서는 약간 미숙된 종자를 채취하여 후숙시킨 다음 파종하여야 하며 순정종(純正種)을 얻고자 하면 고로쇠나무를 대목으로 접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용도

조경수나 공원수 외에도 목재의 재질이 우수하고 치밀하며 견고하여 가구재, 건축재, 단판재, 기구재 등 활용가치가 높다. 